한국축구대표팀, 멕시코와 2-2 무승부

9월 A매치 두번째 평가전
손흥민 · 오현규 골로 동점

미국과 첫 평가전 2-0 완승
원정경기서 1승 1무 기록

손흥민이 9일(현지 시간) 미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 파크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친선 경기 후반 20분 동점 골을 넣은 후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한국은 10분 뒤 오현규가 역전 골을 넣었으나 추가 시간 동점 골을 허용하면서 2-2로 비겼다.

2026 북중미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는 홍명보호가 '북중미 맹주' 멕시코와 9월 A매치 두 번째 평가전에서 비겼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 대표팀은 10일(한국 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열린 멕시코와 미국 원정 두 번째 평가전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지난 6월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 한국은 처음으로 유럽파를 포함한 최정예로 내년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 멕시코와 평가전에 나섰다.

지난 7일 미국과 첫 번째 친선경기에선 2-0 완승을 거둔 한국은 멕시코와 비기면서 9월 A매치 원정 2연전에서 1승 1무를 기록했다.

2006년 2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친선 경기(한국 1-0 승) 이후 19년 만에 멕시코전 승리를 노렸던 한국은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한국은 멕시코와 맞대결 전적에서 4승 3무 8패로 열세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손흥민(LAFC)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로 투입돼 A매치 남자 축구 최다 출전 공동 1위(136경기)에 올랐다.

손흥민은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홍명보 현 대표팀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강인은 과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 시절 은사였던 하비에르 아기레 멕시코 감독과의 사제대결에서 승부를 가내지 못했다.

아기레 감독은 2022~2024시즌 마요르카를 지휘했고, 이강인은 2021~2023년 뛰고 파리생제르맹(PSG)으로 이적했다.

반면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열린 일본과 평가전에서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던 멕시코는 한국과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9월 A매치를 승리 없이 마무리했다.

/뉴시스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태권도, 세계와 마주하다' 특별 순회전시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태권도, 세계와 마주하다

국립태권도박물관,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서 순회전시
초창기 교본 · 도복 · 선수 기증 메달 등 유물 100여점 선봬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위치한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원장 구본철)에서 태권도 특별 순회 전시 '태권도, 세계와 마주하다'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인도 뉴델리 한국문화원에서 시작된 순회전의 두 번째 개최이다. 전시 개막식에는 조태익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태권도협회 부회장, 고려인협회장, 카자흐스탄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등 백여 명이 참석해 전시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카자흐스탄은 태권도가 활발히 보급되어 많은 청소년과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태권도, 세계와 마주하다' 전시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소장한 태권도 관련 유물 100여점으로, 초창기 태권도 교본과 1960년대 단증 및 상장, 도복과 보호구,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올림픽 출전 선수의 기증 메달 등을 통해 태권도의 체계화 및 세계적 확산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카자흐스탄 전시 기간 동안 한국 문화원을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나전칠기 손거울, 키링 만들기 등 전시와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관람객의 참여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헌 이사장은 "태권도는 스포츠를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의 언어"라며 "이번 전시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교류의 장이 되어 양국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첫 번째 순회전을 개최한 인도 뉴델리 한국 문화원 전시에는 2,328명이 방문했고, 현지 언론사에서도 취재에 나서는 등 태권도 순회전시를 상세히 전달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 간절히 바라"

박영재 전북승마협회장, 올림픽 유치 적극 나서
"체육을 통한 한국-몽골 간 우정 쌓는데 힘쓸 것"

박영재 전북승마협회장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든든한 지원과 체육 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최근 몽골과의 체육 외교를 통해 양국 간 협력과 올림픽 유치 당위성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박영재 회장은 몽골과의 오랜 인연과 현지 신뢰를 바탕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했다.

박 회장은 전주 기전대 교수이자 동물병원 원장으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몽골을 방문하며 말과 양, 소 등 가축 의료 봉사 활동을 전방위로 진행했고, 몽골 정부로부터 교육봉사부문 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현재도 몽골 각 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박 회장은 "전북승마협회장이기 전 전북도민으로서 올림픽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한국과 몽골 수교 35주년을 맞아 체육을 통한 양국 우정을 쌓아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 승마 발전을 위해 박 회장은 태국 등 해외 국가와 국제교류 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지난해부터는 일본대학승마협회와 상호 교류전을 실시하며 선수 경기력 향상과 우호관계 구축에도 기여했다.

또한 박 회장은 전북도가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는 과정에도 힘을 보탰으며, 2023년에는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1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체육회에 전달하는 등 헌신과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학교 핸드볼팀이 최근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5 전국대학핸드볼통합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원광대 핸드볼팀, 대학핸드볼통합선수권 우승

원광대학교 핸드볼팀이 최근 열린 '2025 전국대학핸드볼통합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 전망을 밝게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경남 고성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원광대는 예선 2위로 준결승에 올라 강원대를 35대27로 제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원광대는 경희대와 맞붙어 전반에는 밀리는 경기를 펼쳤으나, 후반에 대역전극을 펼치며 39대36으로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원광대 4학년 이세빈이, 최우수지도자상은 정호택 감독과 김동명 지도자가 각각 수상했다.

정호택 감독은 "운동부에 물심양면 지원을 해주시는 총장님과 학교의 응원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며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전북핸드볼협회 김태경 회장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전북 핸드볼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그린카드 · 중간 랠리 판독 삭제
프로배구, 13일 컵대회부터 적용

개막을 앞둔 프로배구 컵대회부터 몇 가지 기존 규정이 사라지고 새 규정을 시행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2025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에 변경된 규칙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제배구연맹(FIVB)의 바뀐 규정에 따라 지난 시즌 도입된 그린카드와 중간 랠리 판독은 사라진다.

비디오 판독 실시 전에 선수가 먼저 반칙을 인정할 경우 주심이 해당 선수에게 그린카드를 주는 데, 새 시즌부터 이 장면은 볼 수 없게 됐다.

랠리 중 심판이 판정하지 않은 반칙에 대해 팀이 즉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는 중간 랠리 판독도 한 시즌만에 폐지가 확정됐다.

스크린 반칙 등은 신설됐다.

서브를 할 때 같은 팀 선수들이 상대 선수들의 시야를 가리는 행위가 스크린 반칙에 해당한다.

바뀐 규칙과 새 규정은 2025~2026시즌 프로배구 V-리그에도 적용된다.

/뉴시스